



전주대 최주안 학생, 국제태권도대회 1위

전주대학교 최주안 학생(태권도학과 3년)이 '2024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 -54kg 체급으로 참가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14일 5일간 60개국 3,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이 대회는 지역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확산과 세계 태권도인의 한미당 축제로의 승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최주안 학생은 "최광근 교수님과 김정균 감독님, 이푸름 코치님의 열정적인 지도로 첫 국제대회부터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교수는 "전주대학교 선수단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룬 성과이기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태권도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 실현’

전북자치도, 제4기 도민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5~16일(1박 2일) 부안 모항 해너투 가족호텔에서 7월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도민인권지킴이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북자치도 도민 인권지킴이단은 지역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활동을 통해 피해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로 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제4기는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37일간 공개모집을 통해 206명이 신청하고 도내 14개 시·군 지역별로 총 120명이 선정되어 2026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워크숍에서는 전문 인권강사를 통해 도민 인권지킴이단 주요 역할, 제보방법, 인권시책 모니터링 요령과 인권 마을 열기, 일상에서 찾는 인권 감수성 교육, 영화로 보는 인권교육 등이 진행됐다.

도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도민 인권지킴이단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시군 순회간담회와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향상 시킨다는 계획이다.

정호윤 인권담당관은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도민 인권지킴이단과 자주 소통하고 역량과 사명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화하겠다."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인권 증진 정책을 발굴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정호윤 인권담당관은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도민 인권지킴이단과 자주 소통하고 역량과 사명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화하겠다."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인권 증진 정책을 발굴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은행 남원지점, 남원시에 시원 키트 기탁

남원시 관계자는 JB전북은행 남원지점에서 시원(COOL) 키트 70box(원가액 3백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로 온열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폭염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 희망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여름용 휴겔비블, 플레트, 선풍기로 4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금품 기탁을 희망하는 분들은 시청 희망복지지원팀(620-6333)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은행은 매년 하절기·동절기 주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선풍기·우의 등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으며, 전달식에는 전상익 부행장, 박은영 남원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전상익 부행장은 "앞으로도 남원시민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최경식 남원시장은 "JB전북은행 남원지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시민들이 모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노인일자리 안전교육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차남)는 16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공익형) 참여자 39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화상, 부딪힘/깔림 사고 등)를 설명하면서 사고 예방 방법 및 대처방안을 교육하고, 어르신들에게 혈압조기를 배부하며 노인일자리 활동 시 항상 착용한 상태로 다녀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 어르신은 "일거리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서 고맙고, 교육에 힘입어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힘써보겠다."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은지역사랑봉사단, 완주군 집중호우 피해복구 직원 특별성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백종일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16일 완주군 운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완주군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직원 특별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지역사랑 성금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연중 펼치고 있다. 지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완주군의 피해복구에 동참하고자 이번에 전달식을 마련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완주군 유희태 군수,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 노조간부 전원, 전북은행 오현권 부행장, 김영필 완주군청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15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주군에 전달되는 특별성금 500만원은 지역 상황에 맞게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호 활동과 무더위 속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은 "장마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미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구호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사랑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전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특별성금 이외에도 2,500만원 상당의 '수해 및 화재 긴급 구호키트', 4000만원 상당 '시원(COOL) 키트'를 직접 제작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이 각종 재난 재해와 폭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이만호 기자



지역을 사랑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전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특별성금 이외에도 2,500만원 상당의 '수해 및 화재 긴급 구호키트', 4000만원 상당 '시원(COOL) 키트'를 직접 제작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이 각종 재난 재해와 폭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이만호 기자



수완 탐 김문준 원장,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

순창군은 수완 탐 이비인후과 김문준 원장이 고향사랑기부금 개인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수완 탐 이비인후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준 원장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내 가족을 치료한다는 생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해 리면과 보청기를 기부하는 등 평소에도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김문준 원장은 "순창군에 거주하며 지역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지인인 대한관광 양재환 대표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게 되어 동참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순창군 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항상 나눔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시는 따뜻한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주신 김문준 원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보내주시 소중한 마음을 원동력으로 삼아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순창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화답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 사업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남원의료원과 협업,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 사업을 16일부터 60명을 선착순 모집하여 8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무료검사는 남원의료원에서 보건소에 등록된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합병증 무료 검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와 합병증 조기발견과 예방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자는 복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50세 이상 만성질환 환자 고위험군으로, 검사 항목은 중앙표지자, 갑상선, 당화혈색소, 심전도, 콜레스테롤 등 34종 이상이며 검사는 8월 20일까지 남원의료원에서 실시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은 방문보건팀(063-620-774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50명의 검사자 중 남원의료원 의료진의 1:1 검사 결과 상담 및 집합교육과 인(대장, 췌장, 전립선 등), 혈액질환, 갑상선 기능 이상 등 44건에 대해 재검사 안



내와 방문 건강관리 연계 등 추후 관리했다.

박은아 치매안심과장은 "지역사회 보건의로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 확대 운영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인월면, 취약계층 어르신 삼계탕 나눔 봉사

남원시 인월면 행정복지센터는 취약계층 어르신 15명에게 삼계탕과 김치 곁들이 등 정성이 가득 담긴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며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안부를 확인하며 전달했다.

이번 삼계탕은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식 조리사과정 교육 수료생들이 정성들여 직접 끓인 것으로, 활동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더운 날씨에 고되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이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작은 선물을 전할 수 있어 보람되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노인종합복지관, 건강밥상 프로그램 16일 진행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흥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서 영양교육 민능머거리로 만든 건강밥상 프로그램을 16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서는 영양교육 민능머거리로 만든 건강밥상 을 진행했다. 취약노인의 건강한 밥상을 구성 필수식품인 계란, 두부와 콩나물을 지원하여, 하루 세 끼만 잘 챙겨도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과 영양상태 개선될 수 있도록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열었다. 더불어 여름철 건강지킴 수칙을 안내해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육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무주군 1,543명에게 지리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고자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등 대상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내 집에서 안정된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이흥교 관장은 "예년보다 높은 온도와 잦은 폭우로 삼복더위에 어르신들의 건강이 저하될까 염려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 귀농귀촌학교 교육수료생, 맞춤형 교육 빛나

정읍시가 운영하는 귀농귀촌학교 수료생들이 정읍에 다수 정착한 것으로 나타나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사)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귀농귀촌학교를 수료한 177명에게 대해 전화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32명 중 귀농이 53명, 귀촌이 20명으로 총 73명(41.2%)이 귀농·귀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육생 간 자생적 모임을 통한 적극적으로 열정적인 소통이 정읍 정착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마음 넉넉한 시민들과의 유대 덕분에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완주경찰, 사기 예방 우체국 직원에 감사장 수여

완주경찰서(서장 김효진)는 지난 15일 완주경찰서(서장 김효진)는 서민 대상 악성사기 피해를 예방한 A 우체국 직원에게 감사장과 보상을 수여했다.

같은 달 5일, 불상의 피의자가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충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자 이를 송금하려는 사실을 의심한 직원이 금융사기임을 인지하고 고객을 설득해 3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한 공로다.

이에 완주경찰서장은 평소 전화금융사기 유형에 관심을 가지고 경찰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 등을 전달했다.

김효진 서장은 "경찰·금융기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지능화·고도화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사례 공유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여성소비자연합 김제지부, 이웃돕기 성금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한국어여성소비자연합 김제지부(지부장 이승은)가 지난 15일 조순가정 불우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고자 15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제지부는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정보 취약계층에게 올바른 소비자교육을 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여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성금은 한국어여성소비자연합 김제지부에서 회원들과 힘을 모아 직접 미숫가루를 만들어 판매한 수익으로 마련됐으며, 성금은 조순가정 불우청소년의 생활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